

심층분석보고서

신한은행

-디지털·ICT banking서비스 개발 및 운영

2026.03.31

1 장. 산업 분석

1.1 산업 정의 및 시장 구조: 신한은행이 속한 **국내 은행업**은 일반적으로 예금, 대출, 외환, 지급결제 등 **종합 금융서비스**를 제공하는 **시중은행**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한국 은행산업은 소수의 대형 은행들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로, 흔히 "5 대 시중은행"으로 불리는 KB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NH 농협은행이 핵심 플레이어입니다. 이 다섯 은행은 자산 규모와 지점망, 고객 기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, 각 은행별 모기업인 금융지주사 체제를 통해 은행 외에 증권, 카드, 보험 등의 자회사를 거느린 **종합금융그룹**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기업금융 특화인 IBK 기업은행(정부기관)과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, 그리고 최근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경쟁 구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. 은행업의 수익 구조는 **예대마진(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)**에 따른 이자이익이 핵심이며, 여기에 펀드·보험 판매나 외환, 결제 수수료 등 **비이자이익**이 일부를 차지합니다. 예컨대 2023년 신한은행의 이자이익은 약 7조5,871억 원, 수수료이익은 약 7,939억 원 수준으로 이자이익이 전체 수익의 **80~90% 내외**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[9]. 이러한 **수익 모델** 상, 경제성장률과 금리 수준, 신용위험 관리 등이 은행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며, 정부의 금융정책 및 규제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.

1.2 최근 3~5 년 주요 트렌드: 최근 몇 년간 은행산업에는 **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**과 **핀테크 혁신**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힙니다.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뱅킹이 주류 채널이 되면서 은행들은 대대적인 **IT 시스템 혁신**과 **채널 개편**을 단행해 왔습니다. 실제로 신한은행은 **시중은행 최초로 비대면 전용 코어뱅킹 시스템**을 구축하여 대면채널(영업점)과 모바일/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의 백엔드 시스템을 분리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전체 거래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모바일 거래에 최적화된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, 신한은행 모바일 앱(솔 SOL)의 거래 처리속도를 기존 대비 **4 배 이상 개선**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[4]. 이처럼 **차세대 시스템 구축**과 클라우드 도입, 오픈 API 개방 등이 은행권 전반의 화두가 되었으며, KB 국민은행을 비롯한 경쟁은행들도 신한은행을 따라 **비대면 채널 전용 시스템** 구축이나 **코어뱅킹 고도화**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.

또 다른 트렌드는 **인터넷전문은행의 부상**입니다. 2017년 케이뱅크, 2018년 카카오뱅크 출범에 이어 2021년 토스뱅크가 가세하면서, **비대면 특화 은행**들이 단기간에 수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시중은행의 **리테일 시장**을 일부 잠식하였습니다. 아직 자산규모나 수익은 전통은행 대비 작지만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, 인터넷은행 3사의 2023년 당기순이익 합계는 약 **6,138 억원**으로 전년 대비 **75.2% 급증**하였습니다[2]. 카카오뱅크는 2023년 순이익 4,401 억원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, 토스뱅크도 출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인터넷은행들은 **모바일 UX**, **간편 인증**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, 낮은 비용구조로 **중금리 대출** 등 틈새시장에 파고들며 전통은행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응하여 시중은행들은 **UI·UX 혁신**, 빅테크 제휴, 그리고 **오픈뱅킹 참여** 등을 통해 고객

이탈을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정부주 **오픈뱅킹** 도입으로 타행 계좌조회·이체를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게 되자,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자사 앱에서 **타사 자산까지 조회**하고 **종합자산관리(MyData)** 기능을 제공하는 등 **플랫폼화 전략**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1.3 규제 환경 및 기타 변화: 은행업은 전통적으로 **강한 규제 산업**으로, 최근 수년간 몇 가지 중요한 규제 변화가 있었습니다. **금융소비자보호법** 시행과 함께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, 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가 엄격해졌습니다. 또한 **마이데이터 사업** 허가, **금융샌드박스** 등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했고, 시중은행들도 핀테크 자회사 설립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한편, 2022~2023년에는 **급격한 금리 상승**으로 은행 순이자마진(NIM)이 크게 확대되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지만,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**이자장사 논란**이 일면서 당국이 은행들에 **이자상생지원, 배당 자제** 등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 밖에, 최근 은행권에 불거진 **내부 통제 부실** 이슈(대규모 횡령 사건 등)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**조직문화 개선**과 **윤리경영**을 강하게 주문하는 등, 단순 영업실적뿐 아니라 **ESG 경영, 상생금융**이 새로운 경영 과제로 부상한 것도 산업의 흐름 변화입니다.

1.4 시장 규모와 성장률: 시장 규모 측면에서, 5 대 시중은행의 총자산은 모두 합쳐 약 **2,300 조원** 이상으로 추산되며 국내 은행산업 자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. 개별로 보면 자산 기준 1 위인 KB 국민은행이 약 517 조원, 신한은행이 491 조원 수준입니다. 은행권의 **총대출 잔액**은 2023 년말 현재 약 3 천조원에 육박하며(가계대출 ~1,100 조, 기업대출 ~1,300 조 등), **연간 순이익**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2022 년에 이어 2023 년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2023 년 5 대 은행 합산 당기순이익은 약 **13.8 조원**으로 전년 대비 6.4% 증가하였으며, 2024 년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. **성장률** 측면에서는, 전통적 예대마진 사업은 **성숙기 산업**으로 저성장 추세였으나 핀테크, 데이터사업 등 **신사업 영역**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자본투자 대비 수익률(ROE)은 2020 년대 초중반 7~8%대로 정체되어 있었지만, 디지털 혁신으로 **비용 효율화**를 추진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로 **대손비용**을 억제하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 중입니다. 다만 빅테크 및 외부 경쟁 심화로 **수익성 희석** 압박이 있고, 고금리기조 하에서 2023 년 하반기부터 대출성장률이 둔화되며 이익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습니다.

1.5 가치사슬 및 핵심 수익 지점: 은행업의 **가치사슬**은 크게 **자금조달 - 자금운용 - 금융중개/서비스 제공 - 지원 기능**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**상류 단계**에서는 예금, 적금, 외화자금 조달 등 **자금조달**을 통해 원재료 격인 자금을 모읍니다. **중간 단계**에서는 조달한 자금을 대출(가계주택대출, 기업대출 등)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**운용**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합니다.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여신심사, 리스크관리 등의 부가가치를 더합니다. **하류 단계**에서는 결제서비스, 자산관리(WM), 외환송금, 신용카드 등을 통해 **부가 서비스**를 제공하고 각종 수수료 수익을 얻습니다. 또한 지주 체제 하에서는 은행이 그룹 내 **플랫폼 허브** 역할을 하여 고객에게 증권·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도 합니다.

가치사슬의 핵심 수익 지점은 여전히 **대출이자 수익**이며, **비이자 수익** 중에서는 수수료형 비즈니스(펀드/신탁 판매수수료, IB 수수료 등)가 중요합니다. 한편 **비용 구조**에서는 조달단계의 **이자비용(예금 금리)**과 인건비·점포관리비 등의 **운영비용**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. 최근 은행들은 **디지털 채널 전환**으로 지점망을 축소하고 자동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, **데이터 사업**이나 **플랫폼화**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전통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있습니다. *시사점: 은행 산업 전반이 디지털 혁신과 규제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므로, 지원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T 역량, 민첩한 학습능력, 준법의식을 갖춘 인재임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*

2장. 주요 경쟁사 및 신한은행 포지셔닝

2.1 국내 주요 은행 현황: 앞서 언급한 5 대 시중은행은 규모 면에서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강점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[12].



특히 최근에는 이들 간 **순위 경쟁**이 치열해지고 있는데, 전통적으로 **리딩뱅크** 지위를 다투던 K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양강 구도가 **하나은행의 급부상**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**2022**년에는 하나은행이 약 3 조 1 천억원대의 순이익으로 일시적으로 1 위를 차지했고, **2023**년 상반기에도 하나은행 순이익이 1 조 8,390 억원으로 신한은행(1 조 6,805 억원)을 제치고 2 위를 기록하며 KB 국민은행(1 조 8,585 억원)에 바짝 육박했습니다[11]. **우리은행**은 5 대 은행 중 전통적으로 순이익 규모가 가장 작았는데,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비은행 계열사(증권·보험)가 빈약하여 그룹 수익의 95%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합니다[16]. **NH 농협은행**은 농협중앙회 계열로서 정책금융(농어촌 지원)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낮지만, **전국 농협망**과 조합원 기반의 독자적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배경에서 각 은행을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**KB 국민은행**은 국내 최다 고객을 보유한 **리테일 강자**로서, 과거 정부주도 예금은행(국민은행+주택은행 통합) 출신답게 **주택담보대출** 등 가계대출 시장 점유율 1 위입니다.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 자산 규모도 1 위이지만, 조직이 크다 보니 **인사 적체**와 의사결정 느림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. **신한은행**은 민간 자본으로 출발한 비교적 젊은 은행(1982 년 설립)으로, 공격적인 M&A 와 혁신으로 단기간에 5 대 은행 반열에 오른 성공 사례입니다. **자산구성**은 가계·기업대출이

고르게 분포해 **균형 잡힌 포트폴리오**를 갖추고, **디지털 혁신**과 **해외사업**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으로 평가받습니다. 동시에 **성과주의 문화**가 강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“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상도 확실한 은행”으로 통합니다[18]. **하나은행**(KEB하나)은 2015년 외환은행 인수 합병 이후 **외환·글로벌 부문**에서 강점을 보이는 은행입니다. “연줄(연고)보다 **실적 위주 문화**”가 뿌리내려 영업압박이 심하지만, 능력만 좋으면 빠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외환은행 출신과 하나은행 출신 간 조직문화 융합 이슈가 한때 있었으나, 최근 성과로 조직 안정을 꾀하며 **공격적 영업**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. **우리은행**은 한때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관리 하에 있었다가 민영화된 역사 때문에 **안정적이지만 관료적**인 문화가 있다는 평입니다. “조직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하나 **인맥 영향**이 다소 있다”는 내부 의견이 있고, 타 은행 대비 **영업전략의 혁신성**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습니다. **NH 농협은행**은 다른 시중은행과 다르게 **중앙회 지배구조**로 운영되어, 성과보다는 정책적 목적과 내규 준수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. 전국 농협조직과 연계한 **지역 밀착 영업**이 강점이나, 디지털 경쟁력 측면에서는 민간 은행보다 다소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.

2.2 글로벌 및 신규 경쟁자: 국내 시장 외에도 **글로벌 은행**과 **빅테크 기업**들이 잠재적 경쟁자입니다. JP 모간, HSBC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기업금융이나 투자금융 영역에서 국내 은행과 경쟁/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, Apple 이나 Google 같은 빅테크는 **간편결제, 송금, 여신중개** 등 은행 고유 업무에 일부 진출하고 있습니다. 특히 국내에서는 2023년 **애플페이 상륙**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자 은행계 카드사들이 대응에 나서는 등, **Techfin vs Bank**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입니다. 다만 엄격한 라이선스 산업인 만큼, **플랫폼 기업들은 은행과 제휴**를 맺거나 지분투자(카카오뱅크 사례) 형태로 협력하는 편입니다. 새로운 플레이어로는 **토스**(비바리퍼블리카)가 토스뱅크뿐 아니라 증권, 보험까지 확장하며 **종합 핀테크 플랫폼**으로 부상, **2030 세대**의 금융접점을 선점하고 있습니다.

2.3 신한은행의 포지셔닝: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신한은행은 자타공인 **리딩뱅크 후보**로서 **종합금융 역량**과 **혁신성**을 겸비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고객층도 **대중적 볼륨 시장**부터 PB 고객 대상 **프리미엄 서비스**까지 고르게 아우르며, **B2C 리테일**과 **B2B 기업금융**을 균형 있게 영위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신한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서 그룹 차원의 **B2B2C 사업**, 즉 다른 플랫폼과 협업하는 **Banking-as-a-Service(BaaS)** 전략도 선도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**카카오, 네이버와의 제휴**로 그들의 플랫폼에서 신한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게 하거나, **외부 핀테크에 신한 API**를 제공하는 등의 시도를 업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. 해외시장에서도 신한은행은 **10개국에 현지법인/지점 150여 곳**을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면에서 국내 최선두입니다[19]. 특히 **베트남 신한은행**의 성공이 두드러져, 베트남에서 외국계은행 1위 및 신한은행 해외부문 순이익의 36%를 차지하는 등 해외사업을 **새로운 성장축**으로 삼고 있습니다[19]. 이런 다각화 덕분에 신한은행의 경우 2024년 기준 **전체 순이익의 약 20%**를 해외부문에서 벌어들이며 국내 경쟁사 대비 글로벌 수익 기여도가 높습니다[25].

서비스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신한은행은 **전통 금융 + 혁신 서비스**의 양면 전략을 보입니다. 한편으로는 예적금, 대출, 외환 등 **기본 banking서비스** 품질을 꾸준히 높여 한국능률협회 등 각종 평가에서 **고객만족도 1 위**를 다수 획득해온 반면, 다른 한편으로는 **플랫폼 서비스**인 「신한 쏘(SOL)」 앱을 **생활금융 플랫폼**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신한 SOL 에는 **증권, 카드, 보험** 기능은 물론 공과금 납부, 부동산 시세조회 등 비금융 편의기능까지 통합되어 있습니다. 더 나아가 2022 년 신한은행은 자체 생활 플랫폼인 **배달앱 「땡겨요」**를 출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 승인을 받고 본격 운영 중입니다[6]. 땡겨요는 **공공배달앱** 컨셉으로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결제 데이터 확보를 노린 전략으로, 은행이 **비금융 영역**에 진출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힙니다. 또한 2024 년에는 국내 최초 **AI 브랜치**를 개설하여 **인공지능 은행원**(대형언어모델 기반)을 도입, 고객과 자연어 상담을 하고 **계좌 개설, 환전 등 업무를 실시간 처리**하는 혁신도 선보였습니다. 이처럼 신한은행은 **디지털 혁신 선도자** 이미지와 **종합금융 신뢰 브랜드** 이미지를 모두 갖추며, 경쟁사 대비 **한 발 앞선 전략 실행력**을 보여주는 포지셔닝입니다. *시사점: 지원자는 신한은행의 이러한 강점을 잘 이해하고 "왜 신한은행인가"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. 예컨대 "타 은행 대비 신한은행의 디지털 혁신 문화와 글로벌 비전에 끌렸다"는 식으로 신한만의 차별화 요소를 짚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*

2.4 최근 3~6 개월 내 주요 이슈: 최근 반년 간 신한은행 및 경쟁사들에는 굵직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. 신한은행은 2025 년 초 정상혁 행장 취임 이후 **조직 개편**을 단행하여 영업조직 내에 **디지털혁신그룹**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전략 조직을 강화했고, **미래혁신금융부**를 신설하여 중장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. 또한 앞서 언급한 AI 브랜치 도입, 차세대 코어뱅킹 개편 완료 등으로 **IT 인프라 혁신**을 마무리 지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[4]. 다만 한편으로 **20 억대 전세사기 연루 사고, 직원 횡령 사건** 등이 연달아 발생하여 2024 년 말~2025 년 초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**압수수색**을 받는 등 **내부통제 이슈**가 불거졌습니다[23]. 이에 신한은행은 "책무구조도" 도입, AI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평판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.

경쟁사들의 이슈로는, **KB 국민은행**이 2023 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**조직슬림화**를 추진하는 한편 **Liiv Next** 등 MZ 세대 대상 신규 앱을 선보이며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나섰습니다. **하나은행**은 2024 년 초 중소기업 여신 강화로 기업대출을 업계 최대 폭으로 늘리는 공격경영을 이어갔고, **우리은행**은 지주 회장이 교체되고 조직쇄신 작업과 함께 **비은행 강화 M&A** 가능성이 업계 화제로 떠올랐습니다. **인터넷은행**들은 2023 년 하반기부터 **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**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전통은행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또한 2024 년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**"이자수익의 사회환원"**을 압박하면서, 각 은행이 취약계층 지원,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의 **상생금융 정책**을 발표하는 등 업계 전반에 **영업문화 변화**가 감지됩니다. *시사점: 지원자는 최근 은행권 이슈를 면밀히 팔로업하여 면접 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. 특히 내부통제, 상생금융,*

디지털 혁신 등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의견을 말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3장. 신한은행 심층 분석

3.1 사업 구조 (매출 비중 등):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로서 그룹 내 **순이익 기여도 약 60% 이상**을 차지하는 **중추 사업부**입니다. 은행 내부적으로는 **개인금융부**, **기업금융부**, **글로벌/글로벌 IB** 부문, **디지털/ICT** 부문, **WM** 부문 등으로 조직이 나뉘어 있으며, 수익은 주로 개인/기업금융에서 창출됩니다. **부문별 수익 비중**을 대략 살펴보면, **리테일 금융**(개인고객 예적금 및 가계대출, 신용대출 등) 부문이 전체 이익의 약 50% 내외를 차지하고, **기업금융/기관금융** 부문이 30~40%, **글로벌** 부문이 10~15% 가량으로 추정됩니다[25]. 앞서 언급한 대로 2024년 기준 글로벌 부문 순이익 비중이 20%까지 상승 목표이므로, 향후 해외 사업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[26]. 상품별로 보면 **이자이익** 비중이 높아, 여수신(net interest margin)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. **2023년** 신한은행 별도기준 이자이익은 약 **7조 5천억원** 수준으로 전년 대비 4.2% 증가하여 순이익 상승을 견인했습니다[9]. 한편 같은 기간 **수수료이익**은 21.5% 급증한 **7,939억원**으로 이자이익 대비 규모는 작지만 성장률이 높았습니다[9]. 수수료 수익의 주요 원천은 **자산관리(WM)** 상품 판매 수수료, 신탁수수료, IB 수수료, 그리고 외환송금 및 카드 수수료 등입니다. 이처럼 신한은행은 **전통예대마진 + 비이자 수익 다변화** 전략으로 수익구조를 개선 중이며, 특히 그룹사인 신한카드, 신한투자증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**증권·카드 상품 교차판매**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또한 **지역별**로 보면, 국내 영업이익이 대부분이지만 **해외 현지법인**(신한베트남은행 등)과 뉴욕/동경지점 등의 순이익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[19]. 예컨대 신한베트남은행은 2023년 순이익 2,640억원을 내며 글로벌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[19]. **시사점:** 이와 같은 사업 구조를 이해하면, 지원자는 신한은행이 가계·기업·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**고르게 강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**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특정 분야(예: "글로벌 경험을 살려 신한은행의 해외사업에 기여하고 싶다")를 언급하되,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

3.2 중장기 전략 방향: 신한은행은 2025년을 향한 비전으로 **"Value-up Together! 본업의 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견고한 은행"**을 내걸고 있습니다. 이는 **가치 중심 성장, 미래 준비, 견고한 체질**이라는 3대 전략목표로 구체화되는데, 첫째 '본업의 가치혁신'은 **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결·확장**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의미합니다. 둘째 '미래 준비'는 **AI·클라우드·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내재화**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가리키며, 셋째 '견고한 체질 구축'은 **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**을 뜻합니다. 이러한 방향 아래, 신한은행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**플랫폼 확장**을 "선택이 아닌 필수"로 삼아 땡겨요, 헤이영(Hey Young) 캠퍼스 등 **내부 플랫폼**을 차별화하고 고객

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[7]. 또한 외부 빅테크와 **제휴형 플랫폼 전략(BaaS)**을 통해 생태계의 일부로 연결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아울러 **AI 기반 금융**을 선도하기 위해 **생성형 AI** 기술을 각종 업무에 접목하고, **AI 상담사·RPA(업무자동화)** 등을 도입하여 내부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. 정상혁 행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"AI·클라우드·블록체인 등 최신 디지털기술을 내재화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자"고 강조하였고, 실제로 2024년에 개점한 AI 브랜치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 이러한 전략의 실행 결과입니다. **글로벌 전략** 측면에서는, 2025년까지 **모든 해외 점포의 이익 기여도 20% 달성**을 목표로 베트남, 일본 등 주력 시장에서는 추가 투자를 통해 **압도적 1 위**를 공고히 하고, 북미·동유럽 등 신흥 유망 지역에는 **영업망 확대와 CIB(기업·투자금융) 기능 강화**를 추진 중입니다[31].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LA 법인 외에 달라스출장소 등을 신설하여 한인 기업뿐 아니라 현지 중견기업 거래까지 넓히고 있고, 동유럽 폴란드 등에는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전략을 펴고 있습니다[31]. *시사점: 신한은행의 전략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, 그리고 내실 강화로 요약되며,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을 이 중 어디에 연결시킬지 고민해야 합니다. 예컨대 IT 전공자는 "AI 등 디지털 내재화 전략에 기여"를, 해외경험자는 "신한의 글로벌 20% 비전에 동참"을 어필하면 효과적인 것입니다.*

3.3 차별화 포인트: 신한은행이 경쟁사 대비 두드러지는 강점은 **디지털 기술 선도와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**로 요약됩니다. 앞서 언급한 **이중 코어뱅킹** 구축 사례는 신한은행의 **IT 역량**과 실행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[3][4]. 또한 신한은행은 2019년 국내 최초 **오픈뱅킹 시범사업** 주도, 2020년대 초반 **마이데이터 사업 1 위** 선정 등 혁신 서비스 도입에 항상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. 이는 지주 차원의 **디지털 투자** 지원과 함께 은행 내 **디지털/ICT 조직**의 위상이 높기 때문입니다 (디지털그룹장이 부행장 직속으로 전략 결정에 참여). **브랜드 및 고객기반** 측면에서는, 신한은행은 꾸준히 **고객만족도 1 위**(한국생산성본부 KCSI 등)와 각종 **최우수은행상**을 수상하며 쌓아온 **신뢰 자산**이 큼니다. 1980년대 출범 이후 비교적 **사고가 적고 보수적인 리스크관리** 문화로 "안정적이다"는 평판을 얻어 왔고, 이는 고객 충성도로 이어집니다. 실제 2022년 사모펀드 사태 등 업계 공통 이슈 때도 신한은행은 비교적 피해가 적어 평판 리스크 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**기술** 관점에서는 자체 IT 자회사인 **신한 DS**를 통해 인력과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고, AI 알고리즘 기반 **정교한 여신심사모형, 블록체인 기반 정책자금 관리** 등 금융공학 측면 혁신도 활발합니다.

채널 측면에서는 전국 800여개 영업점과 960만명 이상의 활성 모바일 앱 사용자라는, **온오프라인 융합 채널** 경쟁력이 돋보입니다. 예컨대 여전히 중장년층에게 강한 영업점 네트워크와, 젊은층에게 편리한 SOL 앱 양쪽 모두 업계 최상위를 유지하여 **전 연령대 고객층**을 아우릅니다. **비용구조** 면에서도 신한은행은 2010년대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 효율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**판관비 절감**에 적극적이어서, 국내 은행 중 **영업이익경비율(C/I)**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. 마지막으로 **그룹 시너지**도 차별화

요소인데, 신한금융그룹은 타 금융그룹 대비 계열사 간 협업이 활발하고 원신한(One Shinhan) 전략을 통해 **은행-카드-증권-보험**이 연계영업을 잘 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누리기 쉽습니다. *시사점: 지원자는 신한은행의 이런 강점을 염두에 두고, 면접 답변 시 "신한의 강한 디지털 추진력 아래 성장하고 싶다"거나 "폭넓은 고객층을 상대하며 금융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"는 식으로 어필하면 좋습니다. 이는 본인이 가진 역량(예: IT 기술,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 등)을 신한은행의 차별화 포인트와 연결하는 접근입니다.*

3.4 리스크 요인: 모든 기업이 그렇듯 신한은행도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에 직면합니다. **거시경제/금융시장 리스크**로는 금리변동,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한 **신용위험**과 **시장위험**이 있습니다. 최근 금리상승기에는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졌고, 부동산 PF 대출 등의 부실 가능성도 업계 이슈입니다. 신한은행은 이에 대비해 **총당금 적립**을 늘리고 보수적 심사를 유지하고 있으나, 경기침체 시 **NPL(부실채권)** 증가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. **규제/정책 리스크**도 큼니다.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 등 **이자마진 규제**를 강화하고, 은행 이익의 사회환원 압박이 상존하여 **초과이익금 환수**나 **금융소비자 보호**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. 이는 수익성 제약 요인이 됩니다. **경쟁 리스크**로는 앞서 언급한 빅테크·핀테크의 잠식과 **동종은행 간 경쟁 심화**를 꼽을 수 있습니다. 특히 MZ 세대는 카카오뱅크 등으로 이탈하기 쉽고, 전통 우량기업들도 빅테크 금융을 이용하는 추세여서 **고객 유지**가 도전과제가 됩니다. **기술 리스크**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**사이버보안** 위협, 금융정보 유출 등이 항상 존재합니다. 신한은행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(FDS) 등을 활용하지만, 최근 금융권 해킹 시도가 지능화되어 지속 투자와 인력이 필요합니다. **인력 리스크**도 있는데, 은행권이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숙련 인력이 줄고 **ICT 전문인재 확보 경쟁**이 치열합니다. 신한은행은 개발자 처우 개선 등 노력 중이나 빅테크 대비 유인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**평판 및 내부통제 리스크**를 들 수 있습니다. 2023~2025년 연달아 발생한 직원 횡령, 대출비리 사건 등은 신한은행의 신뢰 자산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[23]. 이는 **CEO 리더십**의 과제로서, 실제 정상혁 행장은 "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조직문화"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천명하였습니다. *시사점: 지원자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인지하고, 은행원의 윤리의식, 리스크관리 역량을 자신이 갖추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. 가령 면접에서 "최근 금융사고 원인을 무엇이라 보나" 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, 신한은행의 관점에서 원칙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.*

4 장. 인재상·조직 문화·채용 특징

4.1 신한은행의 공식 인재상 키워드: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내세우는 핵심 인재상은 **"바르게, 빠르게, 다르게"**로 요약됩니다[35]. 이는 윤리의식과 정직함을 갖고 고객과 미래를 기준으로 **바른 선택**을 하는 인재,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**빠른 학습**

실행형 인재, 그리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**남다른 성과를 내는** 인재를 의미합니다[35]. 특히 신한은행은 '신한 WAY 2.0'이라 불리는 그룹 미션·핵심가치 체계를 운영하며 **고객중심, 미래지향, 혁신추구, 상호신뢰** 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. 공식 채용 페이지에도 **정직, 전문성, 창의성, 팀워크** 등이 키워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. 예컨대 신한 DS(신한의 IT 계열사) 채용사이트에 따르면 **"바르게" (윤리·고객중심), "빠르게" (신속 실행 및 성장), "다르게" (창의적 결과)** 인재를 찾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[35]. 실제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자의 **도덕성**(예: 금융인으로서 정직), **전문지식**(예: 지원 직무 관련 지식), **혁신역량**(예: 새로운 시도 경험), **협업역량** 등을 평가합니다. 특히 **2026년 현재 은행권 공채**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은 **디지털 이해도 + 리스크 관리 역량 + 고객중심 사고**입니다[36]. 단순히 금융에 관심 있다는 수준을 넘어, **최근 금융 이슈나 디지털 전략을 이해하고 본인 경험과 연결** 지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며, 지원동기에서는 "왜 금융업인가"보다 **"왜 우리 은행인가"**를 명확히 하는 지원자를 높이 평가합니다[36].

4.2 실제 조직문화와 인재상 해석: 신한은행은 흔히 업계에서 **성과주의와 시스템 문화**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내부 직원들은 "신한은행은 대치동의 인기 강사 같다"고 비유하는데, 그만큼 **업무 강도가 높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**는 의미입니다[18]. 이러한 문화는 곧 인재상에서 말하는 **"빠르게, 다르게"**와 연결됩니다. 즉, 직원들에게 **빠른 실행력과 높은 목표 달성 의지**를 요구하고, 이를 달성하면 타 은행보다 빠른 승진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합니다. 실제로 잡플래닛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실적만 좋으면 젊은 간부도 나올 수 있고, 성과에 따라 **승진이 빠른 편**입니다. 대신 **업무 압박감**이 상당하여,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버텨낼 수 있는 **끈기와 책임감**을 갖춘 사람이 적합합니다. 한편, "바르게"에 해당하는 윤리의식도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. 빈번한 금융사고로 진옥동 前 회장(현 지주회장) 시절부터 **직원 윤리교육과 책임경영**을 강조했고[39], **신한컬처지수 조사** 등을 통해 조직문화 진단도 시행했습니다[39]. 조직문화 측면에서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**보수적인 금융권 문화** 속에서도 비교적 **수평적 소통**을 늘리려 노력하는 편입니다. 2030 젊은 행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**주니어보드(청년이사회)**를 운영하거나, 임원들도 디지털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**임원 해커톤**에 참여시키는 등 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. 다만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업(業)의 특성상 **규칙과 절차**가 중시되고, 은행권 공통으로 **연공서열과 딱딱한 분위기**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.

4.3 최근 채용 트렌드: 신한은행은 2020년대 들어 채용 방식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. 우선 **정기공채 폐지, 상시수시채용 도입**이 큰 변화입니다. 2024년부터 신입행원을 필요 시기에 따라 수시로 뽑고 있으며, 디지털/ICT 인력은 별도 트랙으로 상시 채용합니다. 실제로 2026년 3월에도 **디지털/ICT 수시채용** 공고를 통해 여러 IT 직무 신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[41]. 채용공고 문구를 보면 과거에 비해 **직무 요건을 상세히 명시**하고, "O명" 형태로 유연하게 인원을 기재(O명)하는 등 **직무적합성 중심** 선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[41]. 또한 채용 절차에 **코딩테스트나 온라인 데이터 역량검사**를 포함하여 지원자의 **실제 기술**

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이번 신입 디지털 채용에서는 서류 후 **온라인 코딩테스트**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, 개발직무 지원자는 알고리즘 문제풀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 전형 단계는 직무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**서류 - 필기(NCS+전공/코딩) - 1 차면접 - 2 차면접 - 신체검사** 순이며, 디지털 직무는 필기대신 코딩 or 데이터테스트가 들어갑니다. **채용 톤**은 지원자들에게 **“함께 성장할 디지털 인재”, “미래 금융을 이끌어갈 패기 있는 인재”**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. 예를 들어 캐치(Catch) 채용정보 사이트 등에 나온 신한은행 채용공고 요약을 보면 대표 직무로 DevOps, 보안엔지니어 등이 언급되고, **“학력무관, 열정 중시”** 등의 표현으로 열려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4.4 서류/면접 평가 포인트: 신한은행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**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**을 가장 중시합니다. 특히 **“왜 신한은행인가?”**라는 질문은 거의 매번 등장하며, 여기에 지원자가 **신한의 가치와 비전 이해도**를 담아 답변하길 기대합니다[36]. 또한 **고객 중심 에피소드**(힘들었던 고객응대 경험, 갈등 해결 사례 등)나 **변화 혁신 경험**(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선을 이룬 사례)을 물어봄으로써, 지원자가 신한의 인재상인 **“고객중심적이며 창의적인 실행가”**인지를 평가합니다. 금융권 공동으로 진행하는 **NCS 필기시험**(직업기초능력 평가 등)은 2022 년 이후 폐지되었지만, 이를 대신해 **AI 역량검사**나 **PT 면접**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. 신한은행의 경우 **1 차 면접**에서 지원 직무 관련 **프레젠테이션 면접** 또는 **집단토론**을 실시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봅니다. **2 차 임원면접**에서는 인성 및 조직적합도를 확인하며, 압박질문보다는 **지원자의 가치관**이나 **입사 후 포부**를 깊게 물어보는 편입니다.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신한은행 면접에서 **시사 이슈**에 대한 견해를 자주 묻는다는 것입니다. 예컨대 **“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”, “ESG 경영이 은행에 왜 중요한가”** 등의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**업계 이해도와 논리력**을 평가하니, 평소 뉴스나 보고서를 통해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시사점: 신한은행은 직무 전문성과 조직 문화 적합성을 모두 보는 만큼, 지원자는 한편으로 관련 직무역량(예: IT 개발이면 프로젝트 경험)을 어필하고, 다른 한편으로 신한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태도와 열정을 보여줘야 합니다. 면접 답변에서는 항상 “고객가치 창출”이나 “디지털 혁신 기여”처럼 은행원이 가져야 할 사명감과 본인 역량을 연결 지으면 좋습니다.

5 장. 직무 분석 - banking서비스 개발 및 운영 (디지털/ICT)

5.1 직무의 핵심 역할: **“banking서비스 개발 및 운영”** 직무는 신한은행의 **핵심 IT 엔지니어 직무**로서, 은행의 다양한 **banking 시스템(계정계)**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 신한은행 채용공고에 따르면 본 직무의 주요업무는 **“예금, 펀드, 대출, 환전 등 banking서비스 개발 및 운영”**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즉, 은행의 기본 금융상품(수신·여신·외환 등)을

지원하는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며, 장애 없이 24 시간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를 상상해보면, 오전에는 **전일 배치작업(야간 일괄처리)** 결과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고, 영업시간 중에는 **시스템 모니터링**을 통해 이체나 대출 실행 등의 거래가 정상 처리되는지 실시간으로 살핍니다. 동시에 **개발 업무**도 병행하여,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나 제도 변경 등에 따른 **프로그램 수정 작업**을 진행합니다. 예컨대 “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방식 변경” 요구가 있으면 관련 코드를 수정·테스트하고, “모바일앱에 신규 예금상품 추가” 프로젝트가 있으면 앱개발팀과 연계하여 서버측 API 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합니다. 신한은행의 이 직무는 특별히 **글로벌 시스템**까지 범위에 포함되는데, 신한은행이 진출한 **20 개국 해외 법인/지점의 banking시스템 개발 및 운영**도 담당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해외지점에서 필요로 하는 현지화 기능(예: 베트남의 현지 규정에 맞는 보고서 시스템 등)을 개발하거나 본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외에도 적용하는 일을 조율합니다. 또한 **마케팅, 리스크, 재무회계 등 내부 정보시스템 개발**과 **대외기관 연계 시스템 개발**도 업무에 포함되어, 은행 내부 지원부서(마케팅부, 리스크관리부 등)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보계 시스템과, 법원·국세청·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과의 인터페이스 시스템도 관리합니다. 요약하면 **코어뱅킹부터 정보계·연계시스템까지 망라한 백엔드 개발자**로서, 은행 IT 시스템의 **전체 수명주기(SDLC)**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*이러한 역할은 단순 코딩에 그치지 않고,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.*

5.2 협업하는 이해관계자: banking서비스 개발/운영자는 **사내 여러 부서 및 외부 파트너들과 협업**하게 됩니다. 먼저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대상은 **같은 ICT 그룹 내 동료**들입니다. 예를 들어 개발자들은 업무 분석을 담당하는 **IT 기획자(시스템분석가)**, 화면이나 앱을 만드는 **프론트엔드 개발자/디자이너**, 품질을 책임지는 **테스터(QA)**들과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.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**인프라팀(서버/네트워크 관리자)**과 협력하여 장애 대응이나 성능 튜닝을 함께 합니다. 개발 대상 시스템의 **업무 부서**와도 적극 협의합니다. 예를 들어 **여신 시스템**을 개발한다면 여신기획부, 기업금융부서 등 현업 부서의 **상품 기획자**들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합니다. **영업점 직원들(최종 사용자)**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, 새 시스템 도입 시 사용자 교육이나 피드백 수집을 통해 개선점을 반영합니다. 해외 banking시스템의 경우 **현지 법인의 IT 담당자** 및 현지 사용자와 영어 또는 현지어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**공공기관 및 규제기관**이 있습니다. 예컨대 법원압류 시스템 연계 개발 시 법원 전산과 규격을 맞춰야 하므로 **사법기관 IT 팀**과 협의하고, 금융결제원 공동망과의 연동 시 **금결원**과 기술협의를 합니다. 더불어, 일부 개발과제는 **외주 개발사(소프트웨어 업체)**와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. 이럴 경우 개발자는 **외주 인력 관리**와 산출물 검수를 통해 품질을 책임집니다. 종합하면, 이 직무는 **내부로는 영업/지원부서 IT 부서 경영진, 외부로는 기관~벤더사까지** 폭넓은 스테이크홀더를 조율해야 하는 **커뮤니케이터**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**협업과 조정 능력**이 성공의 키 포인트입니다.

5.3 필요 역량 - 기술/지식: 신한은행이 요구한 필요역량을 보면 **C, Java, JavaScript** 등 프로그래밍 역량과 **알고리즘, 데이터관리, 네트워크** 등 컴퓨터공학 지식을 꼭고 있습니다. 이는 해당 직무가 **시스템 개발자**이므로 기본적으로 **다양한 언어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과 CS 전반에 대한 탄탄한 기초**를 요구함을 의미합니다. 실제 신한은행의 코어뱅킹은 대형 프레임워크(C 언어 기반, Oracle DB 사용)가 동작 중이고, 정보계나 채널 쪽은 Java 기반의 웹 서버도 많습니다. 그러므로 C 언어의 구조적 프로그래밍부터 Java/JavaScript 의 객체지향, 웹 프로그래밍까지 **멀티 스킬**이 필요합니다.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**관계형 DB(Oracle)**를 쓰므로 **SQL 활용 능력**은 필수입니다. 네트워크 지식도 요구하는데, 이는 분산 환경의 트랜잭션 처리, 대외기관 연결 등에서 **TCP/IP, API 통신** 구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예컨대 API 로 다른 기관과 연결할 때 REST/JSON, SOAP 등의 기술을 다룹니다. **운영체제**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유닉스 명령어, 스크립트 작성 등에 능하면 유리합니다. 대규모 금융시스템 특성상 **대량데이터(batch) 처리**와 **성능 최적화** 역량도 중요합니다. 더 나아가 최근 트렌드인 **클라우드 아키텍처, 마이크로서비스** 등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향후 시스템 개편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5.4 필요 역량 - 소프트스킬/지식: 기술 외적으로는 **금융 업무 지식**이 요구됩니다.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**예금/대출 상품 구조, 회계 처리, 금융 규제** 등에 대한 공부가 필수입니다. 초반엔 업무분석가의 도움을 받겠지만, 장기적으로는 **업무 전문가 수준**으로 도메인을 익혀야 효과적인 개발자가 됩니다. 또한 **문제해결 및 논리적 사고** 역량이 중요한데, 복잡한 은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찾거나 새로운 기능을 설계하려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원인을 추적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. **커뮤니케이션**과 **프로젝트 관리 스킬**도 강조됩니다. 앞서 협업 대상을 언급했듯 여러 부서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, 기술적인 내용을 **쉽게 풀어 설명**하고 요구사항을 끌어내는 **커뮤니케이션 능력**이 성공적인 개발의 열쇠입니다. 때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모호하거나 과도할 수 있는데, 이를 **명확히 정리**하고 **우선순위화**하는 기획/관리 능력도 필요합니다. **책임감과 집중력** 역시 운영업무에서 중요합니다. 은행 핵심 시스템은 1 분 다운되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, 담당자는 야간이든 휴일이든 문제 발생 시 대응할 **헌신적인 자세**가 요구됩니다. 마찬가지로 금융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**윤리의식**과 주의도 필요합니다. 한편, 해당 직무는 최근 **Agile 방법론**을 부분 도입하여 업무하는 추세여서 **애자일한 팀워크, 적극적인 학습태도**도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면 **"풀스택"** 개발 역량뿐 아니라 **금융전문성과 조직 적응력**을 두루 갖춘 **T자형 인재**가 이상적 프로필입니다.

5.5 성과지표(KPI)와 평가 포인트: 이 직무의 성과는 **시스템 안정성과 프로젝트 기여도**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은행 IT 부서는 일반적으로 **시스템 가동률(Availability)**, **장애건수** 등을 KPI 로 삼습니다. 따라서 **본인 담당 시스템에 장애가 없고**, 장애 발생 시 **신속히 복구했다면**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. 또한 개발 측면에서는 **프로젝트의 일정 준수**와 **품질**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연내 완료 예정이던 신기능 개발을 제때 완료하여

오픈했다든지, **산출물 결함률이 낮다**든지 하는 지표를 볼 것입니다. **내부고객(현업부서)의 만족도**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“여신부서에서 요청한 시스템 개선을 잘 구현하여 업무효율이 높아졌다”는 피드백이 오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. 만약 DevOps 문화를 도입했다면 배포 자동화 기여, 장애 예방조치 횟수 등도 KPI가 될 수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**금융서비스의 경쟁력 제고**에 기여했는지가 성과의 본질입니다. 예컨대 새로운 모바일뱅킹 기능 개발로 고객 유입 증가나 거래속도 개선(신한 SOL 의 경우 코어 분리로 **속도 4 배 개선** 달성) 등이 대표적 성과로 기록됩니다[4].

5.6 대표 업무 시나리오 예시: *시나리오: “신규 비대면 대출 상품 출시 프로젝트”*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banking서비스 개발자는 프로젝트 팀의 기술리더로 참여하여, **1) 요구사항 분석:** 여신기획부로부터 상품 조건(금리, 한도, 기간 등)과 프로세스를 전달받아 **기존 시스템 겹 분석**을 합니다. **2) 시스템 설계:** 새로운 상품을 구현하기 위해 **대출 계정계 시스템**에 추가해야 할 데이터 필드(예: 우대금리 여부), **여신심사 모듈** 로직 변경점, **대출 약정서 양식** 등을 설계합니다. 또한 **모바일 앱**에서 신청을 받아야 하므로 **채널(API) 설계**도 진행합니다. **3) 개발:** Java 로 코딩하여 심사 모듈에 신상품 로직을 추가하고, 필요한 경우 C 언어 기반 코어 시스템도 수정합니다. Oracle DB 의 프로시저도 보강하고, 연계가 필요한 타 시스템(예: 신용평가 모듈, 서류 OCR 모듈)과의 **인터페이스 프로그램**도 개발합니다. **4) 테스트:** 개발 완료 후 **통합테스트**를 수행합니다. QA 담당자와 함께 정상 케이스 뿐 아니라 한도 초과, 오류 상황을 점검하고, **유관 부서**와 상품 조건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. **5) 배포 및 운영:** 실제 출시일에 맞춰 새 기능을 배포합니다. 배포 전후로 **시스템 백업 및 모니터링** 계획을 수립하고, 출시 당일에는 비상대기하여 실시간으로 로그를 살핍니다. 고객들이 모바일앱으로 신청을 하면 거래 로그를 추적하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 만약 **예기치 못한 오류**(예: 특정 단말에서 신청 버튼이 작동 안됨)가 발생하면, 관련 부서와 원인을 찾아 **긴급 패치**를 배포합니다. **6) 사후관리:** 출시 후 영업부서로부터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기록하고, 추후 정기 버전에 반영합니다. 필요시 **교육자료**를 만들어 콜센터나 영업점 직원에게 전파하기도 합니다.

이상의 시나리오를 보면, banking서비스 개발/운영자는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**기획-개발-운영의 End-to-End** 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신한은행처럼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개발자도 **제품 개발자 마인드**를 요구받으며, **새로운 기술 적용**에도 열려 있습니다. 실제 현재 공고에도 “AI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” 등 **최신 기술 직무**가 함께 모집되고 있어[42], 장차 banking서비스 개발자들도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백엔드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*시사점: 지원자는 이 직무가 은행의 핏줄과 같은 IT 시스템을 책임지는 일임을 인지하고, 본인의 기술 역량과 책임감을 강조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프로젝트 경험을 말할 때 “끝까지 안정화시킨 경험”, “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한 경험” 등을 언급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.*

[1] [11] [14] [15] [16] [27]

<https://www.newstomato.com/ReadNews.aspx?no=1196331>

[2] [17] [21] [전망] 인터넷전문은행, 비이자이익·플랫폼 역량 강화 관건

<https://alphabiz.co.kr/news/view/1065580789874916>

[3] [4] [5] [33] 신한은행이 비대면 전용 코어뱅킹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? - 바이라인네트워크

<https://byline.network/2023/06/19-269/>

[6] 신한은행, 디지털 전환과 고객중심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- 매일경제

<https://www.mk.co.kr/news/special-edition/11453622>

[7] [23] [24] [26] [28] [29] [30] [31] 2025 년 신한은행 이슈 총정리 - 혁신, 내부통제, 글로벌 전략 그리고 과제

<https://studio24.kr/2784>

[8] [9] 14 조원에 치달은 5 대 은행 순이익...1 위는 하나은행

<https://v.daum.net/v/41Pge8kP7o?f=p>

[10] 역대급 순익 5 대 금융...은행 의존도는 3 년만에 감소 - 한국경제

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5021685721>

[12] [13] [18] [20] 잡플래닛

<https://www.jobplanet.co.kr/stories/176>

[19] [25] [34] [DQN] 5 대 은행 글로벌 순익 역대 최대...순익 1 등 '신한', 성장률은 '농협' [2024 은행 리그테이블] - 한국금융신문

https://www.fntimes.com/html/view.php?ud=202502241631368613237391cf86_18

[22] 신한은행, 경영진 인사 및 조직 개편..."신뢰받는 금융기관 역할 공고히 ...

<https://m.joseilbo.com/news/view.htm?newsid=559393>

[32] 신한은행이 올린 신호탄... 은행권, 차세대시스템 고도화 열기[2026 ...

<https://m.ddaily.co.kr/page/view/2025120114533082323>

[35] Career > 인재상 - 신한 DS

<https://www.shinhands.co.kr/career/talent>

[36] 2026 은행권 인재상 및 자소서 연결법 총정리 (신한은행, IBK 기업은행 등) - 링커리어 커뮤니티

https://community.linkareer.com/employment_data/5495236

[37]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직문화 바꿔 은행 한계 뛰어넘자 - 한국경제

<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2012378241>

[38] 신한은행, '미래혁신·포용금융' 조직 신설...중장기 체질개선 시동

<https://www.speconom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9534>

[39] "조직문화 손질해라" 이복현 엄포에...은행권, 대수술 착수

<https://m.ekn.kr/view.php?key=20240625029233625>

[40] [금융 라운지] 신한은행, 핵심부서에 女리더 전진 배치 - 매일경제

<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941632>

[41] [42] [43] [44] [45] [신한은행] 2026 년 신한은행 디지털/ICT 수시채용 상세보기|채용안내 | 금융투자협회

https://www.kofia.or.kr/brd/m_96/view.do?seq=38677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